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의 문학론

— 서발(序跋)을 중심으로 —

김도형(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2.3. 온유둔후(溫柔敦厚)를 통한 풍교(風敎) 구현 |
| 2. 학문적 지향과 문학론 | 2.4. 중정(中正)과 시의(時義)의 조화 추구 |
| 2.1. 박문약례(博文約禮)의 지향 | 3. 결론 |
| 2.2. 인문오도(因文悟道)의 중도(重道) 견지 | |

<국문초록>

본고는 서발(序跋)을 중심으로 이재 황윤석의 문학론에 접근하였다. 그는 문장(文章)보다는 경학(經學)에 치중하였고 문학론은 대체로 성리학적 문학관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의 학문적 지향점은 박문약례(博文約禮)에 있었고,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잡스러움이나 누추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살피야 한다고 경계하였다. 도(道)와 문(文)의 관계에서는 도(道)를 본질적인 것으로 보고 문(文)은 이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인문오도(因文悟道)의 중도적(重道的) 문학론을 보여주고 있다. 또 온유둔후(溫柔敦厚)를 통하여 성정(性情)을 순화하고 풍교(風敎)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고문론(古文論)과 관련하여서는 육경(六經)과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를 전범으로 삼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명(明) 의고파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고 왕양명(王陽明)과 전겸익(錢謙益)의 문장도 배우고자 하였다. 이것은 ‘중정(中正)’과 ‘시의성(時義性)’을 추구하였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형식과 내용에서 성현의 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목적하였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고수

(固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른 변주(變奏)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으며 스스로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주제어 :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 문학론(文學論), 서발(序跋), 박문약례(博文約禮), 인문오도(因文悟道), 중도(重道), 온유둔후(溫柔敦厚), 풍교(風教), 고문론(古文論), 중정(中正), 시의성(時義性)

1. 서론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은 젊은 시절 시로 이름이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노론(老論) 석실서원 학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또 김이안(金履安), 서명응(徐命膺), 신경준(申景濬), 이기환(李家煥), 정경순(鄭景淳), 홍계희(洪啓禧), 홍대용(洪大容), 등 당대 실학(實學)의 거두들과 교류하면서 박학(博學)한 학문세계를 구축하였다.

이재 황윤석과 관련한 문학 분야의 연구는 국문시가와 시조 한역(漢譯)에 대한 것들에서 비롯되었고 가장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다.¹⁾ 그리고 근래에는 그의 한시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²⁾ 또 실학과 생활사를 키워드로 하는 주제통합적인 접근이 있었는데³⁾, 최삼룡은 이재 황윤석의 시를 15

-
- 1) 유재영, 「頤齋 黃胤錫의 木州雜歌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7, 한국언어문학회, 1970.
유재영, 「이재의 「타어부」 고찰」, 『향토문화연구』 5, 1989.
최강현, 「황윤석론」, 『시조학연구총서』 2, 백산출판사, 1990.
김명순, 「황윤석의 시조한역의 성격과 의미」, 『동방한문학』 13, 동방한문학회, 1997.
손찬식, 「이재 황윤석의 시조한역의 성격과 의미」, 『어문연구』 30, 어문연구학회, 1998.
전재강, 「황윤석 시조의 교술적 성격과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19, 한국시조학회, 2003.
 - 2) 박명희, 「이재 황윤석 한시에 나타난 유기체적 자연관」, 『동방한문학』 제33집, 2007.
이상봉, 「황윤석 詩論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26집, 2008.
이상봉, 「황윤석 한시에 나타난 孤意識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8.
이지양, 「황윤석, 仕宦을 위해 떠난 시간의 내면풍경」, 『고전과해석』 5집, 2008.
백원철, 「頤齋 黃胤錫 漢詩의 實學文學的 照明」, 『이재 황윤석의 학문과 사상』, 이재연구소, 경인문화사, 2009.
 - 3) 최삼룡, 「이재 황윤석의 문학연구」, 『頤齋 黃胤錫 - 영·정 시대의 호남실학』, 민음사, 1994.
이종묵, 「황윤석의 문학과 『이재난고』의 문학적 가치」,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살피고 만록(漫錄)의 내용을 통해 『해동이적보(海東異蹟補)』의 작가가 황윤석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중묵은 『이재난고(頤齋亂藁)』의 자료적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 김승룡은 지금까지의 이재 황윤석에 관한 연구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분류하고, 그 대체적인 흐름이 ‘실학’에서 ‘일상’으로 이행해 가고 있다고 파악하였다.⁴⁾

본고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재 황윤석의 문학론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재 황윤석은 미호(溟湖) 김원행(金元行)을 스승으로 받들면서부터 문장(文章)보다는 도학(道學)에 비중을 두었고, 문학론과 관련한 독립된 저술이 없다. 더구나 그의 문학론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자료인 『이재난고』가 너무 방대하고 번역도 되어 있지 않아서 단기간에 전체적인 문학론을 조감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우선 『이재난고』에 있는 서발류(序跋類)⁵⁾에 주목하였다. 저작에서 서발(序跋)이 차지하는 위상은 결코 작지 않다. 시문집의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도 개괄적인 해명을 하여 이론적이고 비평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문예비평(文藝批評)이나 미학(美學)의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⁶⁾ 다시 말해서 서발은 집필자 자신의 문학론이 함께 드러나는 문체이므로 서발류를 중심으로 그것과 연관된 『이재난고』의 다른 기사들을 살펴본다면, 부족하나마 이재 황윤석의 학문적 지향점과 문학에 대한 인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문적 지향과 문학론

2.1. 박문약례(博文約禮)의 지향

이재 황윤석의 학문적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박학(博學)을 추구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학문태도는 자타(自他)의 글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다. 다음은 <수홍극지락진서(酬洪克之樂眞序)>이다.

4) 김승룡, 『頤齋 黃胤錫 연구의 추이와 과제 - ‘실학’에서 ‘일상’으로』, 『동양한문학 연구』25, 2007.

5) 서발류는 시문집의 앞이나 뒤에 붙이는 서발문(序跋文)이다. ‘증서류(贈序類)’의 ‘序’와 ‘서발류’의 ‘序’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서발류’를 ‘제발류(題跋類)’라고 칭하기도 한다. 『頤齋遺稿』와 『頤齋續稿』에서는 ‘序’와 ‘題跋’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포괄하는 의미로 ‘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頤齋遺稿』에는 서(序) 15편과 제발(題跋) 41편이, 『頤齋續稿』에는 서(序) 12편과 제발(題跋) 32편이 수록되어 있다.

6) 김영주, 「서발문의 특징과 전개 양상」, 『한국한문학의 이론 산문』, 동방문화학회, 보고서, 2007, 41쪽.

천지 사이의 사물이 대개 많으니 사람도 또한 사물일 뿐인데 가장 귀하다고 일컫는 것은 어째서인가? 마음의 영명(靈明)이 알지 못함이 없어서 크게는 육합(六合), 작게는 한 몸, 멀리는 팔만(八蠻), 가깝게는 한 집에 무릇 형형색색의 무수한 실마리할 만한 이치를 오직 이 마음이 갖추고 있으니 마음이 '박(博)'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진실로 이를 채우고자 한다면 바야흐로 그 '양(量)'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 또한 한 육체일 뿐이니 어찌 그 가장 귀함이 있으며 어찌 그 신령하고도 밝음이 있으리오. 비록 그렇지만 단지 그 '양(量)'을 다하지 않음이 불가하다는 것만을 알고 그 '약(約)'에 돌아감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저 지엽(枝葉)의 번거로움에 걸려서 한 근원으로 공(功)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바랄 수 없게 된다. 안자(顔子)와 맹자(孟子)가 박약(博約)에 뜻을 다한 까닭은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배움은 진실로 오직 '박(博)'을 힘쓰는 것이 불가하고 또한 곧바로 '약(約)'을 구하는 것도 불가하다. 대개 일찍이 박학(博學)한 사람을 보았는데 꼭진하게 두루 보아서 아득하게 흐르지 않음이 없더라도 살피는 것이 없으면 그 병통은 '잡(雜)'이다. 또 일찍이 간략(簡略)한 사람을 보았는데 화려함을 거두어 실질(實質)에 나아가 정확하지 않음이 없더라도 살피는 것이 없으면 그 병통은 '루(陋)'이다. '잡(雜)'과 '루(陋)'가 오히려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가만히 스스로를 헤아리지 못하고 망령되어 한번 하늘과 사람의 사이를 궁구하겠다고 비겨서 그 역범(易範), 율력(律曆), 서수(書數)의 학설과 산천(山川), 군현(郡縣), 풍속(風俗)의 기록과 이로써 음양(陰陽), 귀신(神鬼), 심성(心性), 정의(情意)에 분별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다. 도리어 이에 빨리 달려서 장차 '잡(雜)'에 흘러갔는데 무릇 스승의 가르침에 나아가 질정(質正)을 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에 놀랍게도 그것이 병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후략)

7) <酬洪克之「樂眞」序> 物于天地間 蓋多矣 人亦物耳 而謂之最貴者何哉 心之靈明莫不有知 大而六合 小而一身 遠而八蠻 邇而一室 凡諸色色形形 靡數可紀之理 惟是心具焉 心之有知博哉 苟篤(爲)充之 方可以盡其量 不然則心亦一肉團而已 烏在其最貴 烏在其靈且明也 雖然 徒知其量之不可不盡 而不知反乎其約 則是望(坐)夫枝葉之繁 而無望一原之收功也 顏孟所以致意於博約者 厥有以哉 然而學固不可惟博之務 而亦不可徑約 是求蓋嘗觀乎博者矣 旁通汎覽 非不森瀾 而不有以察焉 其病也雜 又嘗觀乎約者矣 斂華就實 非不的確 而不有以察焉 其病也 陋雜之與陋尙奚間焉 自余之少也 竊不自揣妄擬 一究天人之際 其於易範律曆書數之說 山川郡縣風俗之志 以至陰陽神鬼心性情意之辨 謂未始留念則不可也 顧乃駸駸然 將流於雜而及夫就質於師教 始乃瞿瞿然 覺其爲可病。(後略) 『이재난고』 제1책, 379쪽. (원문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서본 『이재난고』를 인용하고 그 책수와 쪽수를 밝힌다. 문집과 글자가 다른 경우 괄호로 병기하였고 명백한 오류는 수정하였다.)

이재(頤齋)는 사람이 가장 귀한 까닭은 마음의 영명(靈明)이 ‘박(博)’을 알기 때문이며 이를 채우려면 그 ‘양(量)’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양(量)’만을 다하고 ‘약(約)’에 돌아감을 알지 못하면 지엽(枝葉)의 번거로움에 빠져서 한 원리로 그 공(功)을 거두어들일 수 없게 된다. ‘박약(博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오직 ‘박(博)’에만 힘쓰는 것도 불가하고 또한 곧바로 ‘약(約)’을 구하는 것도 불가하다. 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박약(博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박학하거나 간략한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이를 살피는 것이 없으면 잡다하거나 누추한 병통에 빠지게 되는데 이 둘은 서로 차이가 없다. 이재 또한 ‘박(博)’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잡(雜)’에 흘러갔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깨닫고 병(病)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통유(通儒)’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박학을 지향하면서도 요점으로 귀납한 결과일 것이다.

2.2. 인문오도(因文悟道)의 중도(重道) 견지

도(道)와 문(文)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고전문학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그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혹은 둘의 관계를 독립적인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에 따라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내었다. 재도론(載道論)과 관도론(貫道論)은 모두 문학의 효용성에 관한 논의로 볼 수 있는데 도(道)를 중시하는 정도에 따라 양자를 구별할 수 있다. 재도론은 도(道)에 좀 더 비중이 있고 관도론은 문(文)에 비중이 있다. 조선의 경우에도 도문(道文)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일어났고 이는 곧 저자의 문장관 또는 문학과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재의 경우는 문장(文章)보다는 도학(道學)을 더 중시하는 재도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문장을 성인의 도(道)를 밝히거나 전달하는 수단으로 보는 경향에 가깝다. 다음은 「강호연군가(江湖戀君歌)」의 작가 널리 알려진 장경세(張經世)의 문집에 쓴 서문(序文)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斯道)를 돕고 이단(異端)을 배척하여 이것을 방언(方言)·가곡(歌曲)에 드러냄을 더욱 충실하고 부지런하여 그치지 않으니 선생의 문장(文章)은 진실로 성대하고 도학(道學)에 있어서 더욱 성대하다. 문(文)으로

인하여서 도(道)를 깨달았다고 지목하는 것이 가하고 뗏목을 버리고 언덕에 올랐다고 지목하는 것도 또한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지금 비록 일 백 칠 십 여 년의 먼 시간이어도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남은 빛을 가까이 볼 수 있게 하니 덕을 살피고자 한다면 이 문집이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 이는 오직 쓸쓸하게 두 편일 뿐이지만 진실로 얻어서 이를 음미한다면 어찌 다만 선생을 얻을 뿐이겠는가?)

사도(斯道)를 돕고 이단(異端)을 배척하여 이것을 방언(方言)·가곡(歌曲)에 드러내었다는 것은 바로 장경세가 이황의 「도산육곡(陶山六曲)」을 모방하여 지은 「강호연군가」를 말한다. 이재는 작품의 가치를 다른 무엇보다도 존주척륙(尊朱斥陸)의 사상성에 두고 있고 문장(文章)보다 도학(道學)에 대해 더 극찬하고 있다. 그래서 장경세를 평가하여 문(文)으로 인하여서 도(道)를 깨달았고(因文而悟道) 뗏목을 버리고 언덕에 올랐다고(舍筏而登岸) 말하고 있다. 뗏목은 언덕에 오르기 위한 수단이므로 그 목적지인 언덕에 오르면 뗏목은 두고 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문(文)은 도(道)를 깨닫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이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문(文)의 가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뗏목이 없으면 물을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문(文)은 도(道)를 깨닫기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 문(文)의 가치를 인정하였지만, 그것은 중착점이 아니라 도(道)를 깨닫는 과정에서 필요한 매개체로 보았다. 다음은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에 대한 평가와 이재(頤齋)의 학문 경로를 알 수 있는 기사이다.

지난 밤 순흥(順興)이 말하였다. “우리 숙부(叔父)는 초년(初年)에 고문사(古文詞)를 짓기를 좋아했고 중년(中年)에 비로소 화려함을 거두어 ‘실(實)’에 나아갔을 뿐입니다.” 내가 말하였다.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의 글로 그것을 본다면 비록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도 또한 문(文)으로 인하여서 도(道)를 깨달았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삼천 년에 고문(古文)과 고시(古詩)를 지을 줄 안 사람은 오직 농암뿐이고, 고문과 고시로 도학(道學)에 귀숙(歸宿)한 사람도 또한 오직 농암뿐입니다. 선생님은 이에 진실로 가정(家庭)의 연원(淵源)을 얻었습니다. 저는 초년에 다만 선생님의 문장(文章)의 성대함만을 사랑했을 뿐이고, 중년에는 선생님의

8) 而始終扶斯道 斥異端發之方言歌曲 尤學舉未已 先生之文章因成矣 於道學 尤益盛矣 日以因文而悟道可矣 日以舍筏而登岸 亦何不可之有 今雖一百七十餘年之遠 而猶使人想望餘光有欲放德非是集 莫以是惟寥寥二編焉耳 苟得而味之 豈直得先生而已. 『이재난고』 제7책, 32쪽.

심성(心性)과 이기(理氣)의 학설을 사랑했으며, 아주 늦게는 또 선생님의 신자(神字)의 학설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보건대 아마도 당세(當世)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다시없을 것 같으니 어찌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9)

고문가(古文家)이지 도학자(道學者)로 널리 알려진 김창협을 ‘인문오도(因文悟道)’ 즉 문(文)으로 인하여 도(道)를 깨달았고 고문(古文)과 고시(古詩)를 수단으로 하여 도학(道學)에 귀의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초년에는 문장 짓기에 골몰하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문장의 화려함을 거두고 그 ‘실체(實體)’인 도(道)에 나아갔다는 평가와 같은 말이다. 이재(頤齋) 또한 초년에는 스승 김원행(金元行)의 문장(文章)을 사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관심은 성리학(性理學)으로 옮겨가게 된다.

2.3. 온유둔후(溫柔敦厚)를 통한 풍교(風教) 구현

재도적(載道的) 문학관에서는 문학을 자신의 성정(性情)을 도야(陶冶)하고 백성을 교화(教化)하는 수단으로 보는데 이재는 이와 관련하여 ‘온유둔후(溫柔敦厚)’라는 용어를 많이 거론하고 있다. ‘온유둔후’는 일차적으로 ‘성품이 따스하고 부드러우며 인정이 두텁다’는 의미로 시교(詩教) 혹은 풍교(風教) 즉, 문학의 사회적 기능 혹은 시의 효용성과 관계있다. 이 말은 공자의 “그 나라에 들어가 보면 그 교화된 정도를 가히 알만 하니, 그 사람됨이 온유둔후한 것은 시로써 교화된 것이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10) 다음은 이재의 「용강김공조어시발(龍江金公鈞魚詩跋)」이다.

위의 조어시(鈞魚詩) 일 백 삼 십 말씀은 돌아가신 용강(龍江) 김공(金公)께서 지으신 것이다. 처음에 내가 몽매(蒙昧)할 적에 이는 바가 없었는데 오히려 다형스

9) 昨夜 順興言 吾叔父 初年喜作古文詞 中歲始斂華就定耳 余曰 以三淵文字觀之 雖農岩 亦是因文悟道 蓋我東三千年 知爲古文古詩者 惟農岩是已 以古文古詩 而歸宿於道學者 亦惟農岩是已 先生於此 信乎得家庭淵源矣 孤子初年 只愛先生文章之盛而已 中年 愛先生心性理氣之說 最晚又愛先生神字之說 自今觀之 恐當世無復有如先生者 豈不痛哉. 『이재난고』 제4책, 55쪽. 문맥상 ‘就定’이 아닌 ‘就實’이 맞다.

10) 정요일, 『고전비평 용어의 개념 규정』, 『고전비평 용어 연구』, 태학사, 1998, 122-125쪽. 『禮記』 「經解」, 孔子曰, 入其國, 其教可知也, 其爲人也, 溫柔敦厚, 詩教也.

롭게 혼인의 연고로 일찍 이를 얻어서 읊조렸지만 다만 절주(節奏)가 화합하고 풍기(風氣)가 산랑(散郎)하니 거의 도잠(陶潛)·유종원(柳宗元)의 문정(門庭)을 따른 것을 깨달았고 그 의탁하여 부친 것이 있는 것 같은 것은 그 하나 둘도 살피지 못하였다. 근래에 공의 손자 천정(天定) 씨가 나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아서 말하기를 우리 할아버지가 이에 뜻을 은미하게 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명릉 무인년에 우리 할아버지가 향시에 나아갔는데 ……(중략)

온유돈후(溫柔敦厚)함이 은연(隱然) 중에 삼백 편(三百篇)의 유풍(遺風)이고 슬프고 낮거나 거칠고 사나운 소리가 없으니 지난날 내가 도잠(陶潛)·유종원(柳宗元)에 비긴 것은 그 또한 천박하게 알았던 것이다. 또한 공이 시를 지은 다음 해에 국가에 과옥(科獄)이 있어서 한 무리의 부귀한 집안 자제들이 이에 연좌되어 섬으로 귀양간 사람이 적지 않았으니 공과 같은 사람은 빛에 더욱 빛남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시를 채록하는 모범을 끝내 들지 못했으니 어쩌면 하늘이 의도하기를 바야흐로 대나무 상자에 보관하여 다른 날의 요부(堯夫)를 기다려 이들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가? 공이 다시 나아가지 않은 것도 또한 그 마음이 편안한 곳에 나아간 것뿐이니 사람들이 알아주고 몰라주는 것을 오히려 어찌 죽히 말하겠는가?¹¹⁾

이제는 처음에는 시가 가락이 맞고 기풍이 청신(清新)해서 도연명(陶淵明)이나 유종원(柳宗元) 같은 탈속(脫俗)의 경지가 있는 것만 깨닫고 기탁(寄託)한 뜻이 있음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시의 외형적 형식과 표면적인 내용만 감상하는 데 그쳐, 작가가 실력을 갖추고서도 관리들의 농간에 의해 향사에서 낙방하게 된 것을 고기잡이에 실패한 것으로 비유(比喻)하여 풍자(諷刺)한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나중에서야 그 진면목을 깨닫고는 위의 시가 『시경(詩經)』의 온유돈후(溫柔敦厚)한 유풍(遺風)을 이어받아서 애잔하거나 거친 음조(音調)가 없음을 칭찬하고 있다. 그리고 시를 채록하여 정치의 득실이나 민간의 풍속을 가늠하는 일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시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

11) <龍江金公「永光」釣魚詩跋> 右釣魚詩一百三十言 故龍江金公所作也 始胤錫蒙無所識知 尚幸婚姻之故 蚤得以噉之 但覺箝族諧協 風氣敢朗 庶幾從陶柳門庭來者 若其托寄之存 則未有省其一二也 比者 公孫天定氏 不鄙爲胤錫言 吾祖於是微旨 不偶然者 昔 明陵戊寅 吾祖就鄉試(中略) 溫柔敦厚 隱然三百篇之遺 而無嚙殺粗厲之聲 曩 胤錫擬之於陶柳者 其亦淺之爲知也哉 抑公作詩之翌年 國家有科獄 一隊綺紈子弟 坐此爲島隸者不少 若公者 不益於光有耀乎 而採詩之典 終未之聞也 豈天意方且鏘諸篋衍 待異時堯夫而發之歟 公之不再出 亦就其心之所安耳 人之知不知 尚奚足道哉. 『이재난고』 제1책, 432쪽.

이나 작가의性情(性情)을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다음은 정극인(丁克仁)의 문집에 쓴 「불우헌집서」이다.

(전략) 그 시를 외우고 그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또 이어서 그 시대를 논할 수 있으니, 이는 고급에 말을 살피고 행실을 살피는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바인데, 공의 유집(遺集)에서 더욱 그러한 점을 믿겠다. 공의 사람됨은 비록 알 수 없으나 한두 가지 정신(精神), 심술(心術)은 남긴 것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거니와, 시(詩)는 내용이 깊이가 있고 표현이 아름다우며, 문(文)은 구성이 여유 있고 뜻이 잘 전달되면서 이치에 합당하며, 가곡(歌曲) 또한 고담(高談)하고 화평(和平)하여 읊조릴 만하니, 가만히 음미하기를 오래하면 어느덧 스승으로 모신 자리에서 다시 공을 뵈는 듯하다.(후략)¹²⁾

위의 인용문에서 이제는 시에는 그 사람의性情(性情)이 발현(發現)되기 때 문에 시를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당시의 풍속이나 정치의 득실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시가 내용과 형식에서 조화를 이룬 바탕을 바로 작가의性情에서 찾고 있다. 운운(運運)후를 통한 시가의 풍교(風敎)는 국문시가의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고가신번이십구장(古歌新翻二十九章) 병서(並序)」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가사는 현인(賢人)·소객(騷客)·탕자(蕩子)·사부(思婦)의 무리에서 잡다하게 나왔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이따금 풍속을 바로잡는 뜻과 사람을 놀라게 하는 소리가 있어서 모두 후세에 전할 만하니 중원(中原)의 악부(樂府)와 견줄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의 말은 중국의 말소리와 다르기 때문에 노래를 지을 때는 모두 우리말로서 짓고 한문으로 하는 것이 드물어서 비록 후세에 전하고자 해도 잠깐 전해지다가 곧 그 참모습을 잃게 되니 하물며 고악부(古樂府)와 나란히 비교할 수 있겠는가? 또 백제의 산유화 같은 노래는 다만 그 소리만 있고 가사가 없어졌으니 이는 반드시 다만 그 당시에만 행해지고 문자에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창계(滄溪) 임공(林公)이 대개 일찍이 이를 애석히 여겨서 이태

12) <不憂軒集序> 序曰 誦其詩讀其書 可知其人 又繼以論世 此古今觀言考行者 所同云 然而於集尤信 公之爲人 雖若莫得而知乎 而是一二精神心術之遺 有詩焉 滯澀而鮮華 有文焉 疎達而當理 有歌曲焉 亦古淡和平而可詠 竊試潛味之久 居然若復觀公 於三席之侍。(後略) 『이재난고』 제7책 121쪽. (『국역 불우헌 정극인 문집』, 한국학술정보, 2006, 31-36쪽의 번역을 참고함.)

백(李太白)의 억진아조(億秦娥調)로써 없어진 것을 보충하였지만 또 지금 사람들에게 전해진 창(唱)과는 맞지 않으니 이와 같은 것이 대개 한둘이 아니다. 근래 한가한 거름에 약간을 찾아 얻어서 문자로 번역하였는데 본래의 말을 따르는 데 요점을 두고 약간 윤색을 가했을 뿐이다. 또 반드시 고악부를 모방하는 데에 얽매어서 도리어 그 본래의 뜻을 잃지는 않았다고 이를 뿐이다.¹³⁾

이제는 다양한 계층에서 창작된 시조가 풍속을 바로잡는 뜻과 사람을 놀라게 하는 소리가 있어서 중국의 악부에 견줄만하다고 말하고, 이런 시조가 기록되지 않아서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한자로 번역하였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해치지 않는 것을 의도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풍속을 바로잡는 뜻과 사람을 놀라게 하는 소리’는 바로 풍교(風教)를 말한다. 풍교는 “風以動之, 教以化之.”에서 나온 말로 이것은 다시 ‘풍동(風動)’과 ‘교화(教化)’의 두 단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경』의 풍(風)에 대해 『모시서(毛詩序)』에서는 ‘풍(風)’이란 풍자하고 교화하는 것인데, 윗사람은 ‘풍’으로써 아랫사람을 교화하고, 아랫사람은 ‘풍’으로써 윗사람을 풍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사를 위주로 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죄가 없었고 듣는 사람도 죽히 경계할 수 있는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¹⁴⁾ 직접적인 지시나 비판보다는 시라는 간접적인 문학적 매개물을 통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더 효과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4. 중정(中正)과 시의(時義)의 조화 추구

조선 후기 문인들의 문장론과 비평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고문(古文)의 개념, 즉 ‘전범(典範)’으로 삼아야 할 대상이 무엇이나일 것이다. 고문(古文)의 개념은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명(明)의 복고파(復古派)인 전

13) <古歌新詠二十九章>「並序, 右歌詞雜山於賢人騷客蕩子思婦之屬 而其間往往有礪俗之意 驚人之韻 皆可傳諸後世 以與中原諸樂府馳聘而上下 而顧我方言異於華音 故其爲歌也 悉以俚諺而以文字者實尠 雖欲傳諸後世 而曾未幾傳 何便失其真 矧能與古樂府齊駢哉 又如百濟山有花一曲 只有其聲而其詞則亡 此必只行當世 而未托於文字故耳 滄溪林公 蓋嘗是惜 以李太白億秦娥調 追補其亡 而又不合於今人之傳唱 若此者 蓋不一二 頃於閑隙 搜得若干 譯以文字 要隨本語 而少加潤色而已 又不必拘拘於古樂府之效顰 而反失其本意云爾. 『이재난고』 제1책 56쪽.

14) 이병한 편저,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3, 26쪽.

후칠자(前後七子)의 의고문(擬古文)을 포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의고문과는 구별하여 사용한다. 박지원의 고문이론을 한마디로 ‘법고이창신(法古而創新)’이라고 요약해서 말하는 것처럼 고문은 경전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그 경전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육경(六經)은 태평성대로 인식하는 요순(堯舜)과 삼대(三代)의 유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대와 당파를 초월해 최고의 전범(典範)으로 여겨졌고 이재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음은 앞에서 본 「사촌집서(沙村集序)」이다.

그 시(詩)와 같은 경우는 바야흐로 당송 작품의 수품에 능가(凌駕)하고, 사(詞)는 꽃 사이의 제자(諸子)의 가려 뽑음에 함께 나란히 할 수 있으며, 문(文)은 또 종횡(縱橫)으로 변화하여 명가(名家)에 안주하지 않고서 대가(大家)에 스며들어 가는 생각이 있으니 애초에 저 불우(不遇)한 것으로 조금도 감소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선생께서 이렇게 함은 실로 육경(六經), 사자(四子), 가학(家學)의 전함에 근본한 것이요, 무릇 여러 존생(存省), 어묵(語默), 용사(用舍), 은현(隱見)의 토대는 한결같이 오직 옛 성현의 인의중정(仁義中正)의 남긴 법칙이다.¹⁵⁾

이재는 장경세의 시가 당송(唐宋)의 작품에 비하여 손색이 없고 사(詞)는 제자(諸子)의 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문(文)이 명가(名家)를 뛰어넘어 대가(大家)를 지향할 수 있는 바탕을 종횡으로 변화함에서 찾고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작품 창작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형식적인 면에서 육경(六經)과 사자(四子), 가학(家學)을 토대로 하고 내용적인 면에서 존생(存省), 어묵(語默), 용사(用舍), 은현(隱見)이 성현의 가르침인 인의(仁義)을 벗어나지 않은 결과, 즉 중정(中正)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의 정운희(丁運熙)의 문집에 쓴 서문인 「고주집서(孤舟集序)」도 이재의 문학을 살펴 보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육경(六經) 이후로 도는 천하에 의해 찢어졌다. 점차로 옛날을 회구하는 자들이

15) <沙村集序> (前略) 若其詩 可以方駕乎唐宋作者之藪 詞可以並筮乎花間諸子之選 而文又可以縱橫變化 有不安名家 浸入大家之意想 則初不以夫不遇而少損也 然先生 爲是實本乎六經 四子家學之傳者 凡諸存省語默用舍隱見之地 一惟古聖賢仁義中正之一遺則. 『이재난고』제7책 32쪽.

걸핏하면 말하길 '문(文)은 도(道)의 여기(餘技)이고 시(詩)는 또 문(文)의 여기(餘技)'라고 말을 하니 사륙문(四六文)이 기롱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한 혹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잘못이다. 무릇 도라는 것은 일상의 윤리와 물리로써 마땅히 행해야 할 이치일 따름이다. 신심(身心)의 성정(性情)의 은미(隱微)함에 근본하여 가향(家鄉)과 방국(邦國)의 넓은 곳에 나타남에 도를 따라서 잃지 않고 도를 향하여 멀어지지 않는다면 『서경』이 한유(韓愈)·구양수(歐陽脩)에 있어서와 『시경』이 이백(李白)·두보(杜甫)에 있어서 그 문(文)과 그 시(詩)가 어디를 간들 도(道)와 의(義)가 아니겠는가? 건안(建安)·여릉(廬陵) 연간의 사륙문(四六文)이 또 도에 가까웠지만 진실로 그렇게 여기지 않아서 사람은 사람대로 문예는 문예대로일 뿐이던 비록 이른바 당(唐)·송(宋)의 문장과 한(漢)·(魏)의 시와 서유(徐庾)의 사륙문(四六文)이라도 도에 위배됨이 많을 것이니 세상에서 순수(淳儒)며 장사(壯士)라고 스스로 이르는 자를 누가 그를 위해 일컬어 주리오? 내가 일찍이 이러한 것으로써 우리나라에 구할 적에 그 징험이 있었으니 명종과 선조가 교차될 즈음에 문운(文運)이 지극히 융성하였다. 퇴계(退溪)와 울곡(栗谷)과 같은 여러 선생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주자(朱子)의 도를 밝혀서 삼국(三國)과 고려(高麗)의 이전 년이나 이어져 온 비루한 풍속을 한결같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었다. 그런 까닭으로 예악형정(禮樂刑政)과 충효의열(忠孝義烈)이 거의 삼대(三代)에 점점 나아가 도의 체용(體用)이 땅부터 하늘까지 끝없이 찻으니, 그 인재를 발육함이 성대하였다. 문(文)으로는 소재(蘇齋), 간이(簡易), 월사(月沙)가 있었고, 시(詩)로는 고죽(孤竹), 옥봉(玉峯), 구봉(龜峯), 손곡(蓀谷), 석주(石洲)와 같은 자가 있어서 아울러 서로 일어나서 시문을 광대하게 만들었다. 오직 사륙문(四六文)은 작가의 수를 열거할 만한 것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 도를 소외시키지 않은 것만은 일반적이었다.(중략)

그러한 즉 백광훈(白光勳)의 여향(餘響)을 이어서 송호(松湖)와 더불어 백중세가 되는 것은 또한 오직 이 시(詩) 뿐인데 하물며 그 가운데에 또 절로 흥(興)·관(觀)·군(群)·원(怨)이 있어서 비록 시(詩)이나 실제로는 역사이어서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문예에 있어서 이와 같이 만족스럽다면 도는 처음부터 여기에 존재한 것이니 비록 백세(百世)의 스승과 장수라 하더라도 누가 불가(不可)하다고 말할 수 있으리오.(후략)¹⁶⁾

16) <孤舟集序> 六籍以降 道爲天下裂矣 其稍希古者 動言文者 道之餘詩 又文之餘 卽四六亡譏焉 可知 然亦或者 不思之過也 夫道也者 日用倫物常(當)行之理爾 本諸身心性情之微 形諸家鄉邦國之廣 有以循之 而勿失嚮之 而母遠則典謨之 與韓歐風雅之 與李杜其文其詩 安住而非道而義 烏建安廬陵之四六 又於道庶矣 苟爲不然 人自人 藝自藝而已 則雖所謂唐宋之文 漢魏之詩 徐庾之四六 多見其背道 世之以醇儒莊士自命者 孰爲之稱之 余嘗以是求之 束表 而有徵焉 明宣

먼저 육경(六經) 이후에 천하에서 도(道)가 상실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육경(六經)에는 온전한 도(道)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도(道)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日常)에서 쓰는 윤리(倫理)와 물리(物理)를 마땅히 행하는 이치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올바른 성정(性情)에 근본한다면 이를 다른 사물에 옮겨 적용하거나 무한하게 변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일상에서 도(道)가 합치되어 행해진다면 시문(詩文)이 도(道)의 경지를 획득할 수 있고, 반대로 사람과 문예(文藝)가 어긋나면 모두 도(道)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다. 당(唐)·송(宋)의 문장과 한(漢)·魏(魏)의 시와 서유(徐庾)의 사륙문(四六文)이 뛰어난 이유는 도(道)와 의(義)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그 당시의 사람과 합치되는 시의성(時義性)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문학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명종과 선조가 교차될 즈음에 문운(文運)이 지극히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퇴계(退溪)와 율곡(栗谷) 등에 의해 주자(朱子)의 도가 밝혀지고 이 때문에 도의 본체(本體)와 작용(作用)이 활발해진 것의 결과물이다.

이재(頤齋)는 육경(六經) 외에 사서(四書) 중에서 대학(大學)을 특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는 스승의 영향이 컸다. 서명선(徐命善)이 경서(經書) 중에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하냐고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어려서 선인(先人)에게서 배울 때 선인께서 실로 덕을 숨기고 엄히 가르치셔서 항상 육경(六經)을 반복하기를 명하셨고, 나아가 스승을 가르침을 받들며 미치어서는 먼저 대학(大學)을 읽게 하시면서 육경(六經)과 제자(諸子)의 두뇌(頭腦)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대학(大學)에 조금 더 유의(留意)하였을 뿐입니다.¹⁷⁾

之交 奎運慕隆 爰有退溪栗谷諸先生 先後明朱子之道 使三國勝國二千年 陋俗一變而新之 故禮樂刑政 忠孝義烈 殆駸駸三代 而道之體用 蟠際無疆 則其發育人才之盛也 文而有蘇齋 簡易月沙 詩而有孤竹玉峯龜峯蓀谷石洲者 竝相與作興 而光大之 惟四六 未有家數可舉耳 然其不以道爲外 則一也 (中略) 則繼玉峯餘響 而與松湖伯仲 亦惟是詩焉爾 況其中又自有興觀羣怨 雖詩實史 而非他人可及者乎 夫子藝 如是足矣 道未始不在乎茲 雖謂之百世之師將 誰曰 不可. 『이재난고』 제7책 126쪽. (조남권, 『한국고전비평론』 권2, 민속원, 2006, 334-336쪽의 번역을 참고함.)

17) 余曰 少也 學于先人 先人實有潛德嚴訓 恒令輪回六經 乃其出奉師教 則使之先讀大學曰 此六經諸子之總腦也 以故於大學稍加留意耳. 『이재난고』 제4책, 528쪽.

고문(古文)과 관련한 이재의 견해는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보은현감(報恩縣監) 김정례(金正禮)가 또한 와서 선생님을 모시고 앉아 있다가 조금 뒤에 물러갔다. 내가 따라가 그의 거처에 이르러서 서로 이야기를 하였다. 정례가 “고시문(古詩文)에 있어서 애완한 사람은 누구이고 모의(模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고문사(古文詞)를 배우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중년에 병이 많아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식(李植)이 지은 『두시비해(杜詩批解)』와 호응린(胡應麟)의 『시수(詩藪)』는 꽤 애독했습니다. 팔대가(八大家)로는 구양수(歐陽脩)의 문장이 사랑할 만하고, 십대가(十大家)로는 양명신도(陽明新都)가 애완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전겸익(錢謙益)의 글은 또한 문장이 변화한 것입니다.” 하였다. 정례가 “전겸익의 문장은 비록 지극히 변화하지만 비리(鄙俚)에 가까우니 다만 변화를 다하였고 또한 다른 사람의 쟁그리고 웃는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닐 뿐입니다. 지난번 서정언(徐正言)과 모인 자리에서 훌륭한 글인 백장군(白將軍) 행장(行狀)을 보았는데 비록 자세하게 찾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어려운 곳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른바 어려운 곳은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정례가 웃으면서 “육경(六經)의 문장은 본래 어려운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이 한 층을 지나면 그것에 융화되는데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경지를 경험하고 궁구하고자 한다면 유향(流蕩)¹⁸⁾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정례가 “이와 같다면 그렇습니다.” 라고 하였다.¹⁹⁾

이재(頤齋)와 김정례(金正禮)는 인용문에서는 고문(古文)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김정례가 이재에게 모범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자 이재는 먼저 시와 관련하여 이식(李植)이 지은 『두시비해(杜詩批解)』와 호응린(胡

18) 詩文이 散漫하여 格律에 맞지 않음.

19) 金報恩正禮 亦來陪坐 有頃退去 余踵至其私處相話正禮曰 於古詩文 所愛者誰氏也 模擬者誰氏也 余曰自幼非不欲染指古文詞 而中年多病 不能如意 但於澤堂所爲杜詩批解 及胡元瑞詩藪 頗爲之愛玩矣 八大家 則歐文可愛 十大家 則陽明新都 似可愛玩 而牧齋之文 亦是文之變化者矣 正禮曰 牧齋之文 雖極繁光而近於鄙俚 但能盡變 亦非幼人嘖笑者耳 頃於徐正言座上 得見盛作白將軍行狀 雖未細繹 而似是已至難處矣 余曰所謂難處 容易至乎 正禮笑曰 六經之文 自無難處矣 余曰 過此一層 則融而化之 此境造詣極難 但欲經究此境 則未有不歸於流蕩者矣 正禮曰 此則然矣. 『이재단고』 제1책, 652쪽.

應麟)의 『시수(詩藪)』는 꽤 애독했다고 답하고 있다. 『두시비해』의 원래 제목은 『찬주택풍당두시비해(纂註澤風堂杜詩批解)』로 두보(杜甫)의 시에 대해서 비평하고 주석을 붙인 것이다. 한시에서 두보에 대한 추송은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는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똑 같은 두보의 시라도 이것을 비평하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은 다른 관점을 보여주기 마련이다. 이식은 『두시비해』에서 풍자(諷刺), 기은(奇隱), 완묘(宛妙)의 심미관(審美觀)으로 두보의 시에 접근하고 있는데²⁰⁾ 이제도 이러한 심미관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²¹⁾

『시수(詩藪)』는 명(明)의 대표적인 시에 대한 평론서로 조선에서도 간행되어 문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시수』의 서술태도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당시 전후칠자의 한위(漢魏)와 성당(盛唐)의 시를 중시하는 기풍 위에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의 바른 격조(格調)를 중시하면서도 시대마다의 변조(變調)의 가치를 적극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여 시체를 구분하여 격조를 살피고 시대를 구분하여 그 변화를 논하고 있다.²²⁾ 호응린이 활동하던 당시의 문단의 맹주가 바로 왕세정(王世貞)이었고 호응린은 왕세정과 그의 동생 왕세무(王世懋)와 사우(師友)관계였다. 또 『明史』 「호응린전」에서는 “저술한 『시수』 20권은 대체로 왕세정의 『예원치언(藝苑卮言)』을 율령(律令)으로 삼아서 그 설을 부연하였다.”²³⁾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수』가 명 의고파인 왕세정에게서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시수』를 통해 명 전후칠자의 시론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의 바른 격조(格調)를 중시하면서도 시대마다의 변조(變調)의 가치를 적극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는 서술태도는 앞에서 장경세의 시에 대한 현재의 평가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다음으로 이제는 문(文)에서는 팔대가(八大家)로는 구양수(歐陽脩)의 문장

20) 민경삼, 「이식 《杜詩批解》의 득과 失」, 『중국학논총』 제10집, 1999, 181-184쪽. 이 논문에서 기은(奇隱)은 함축적이면서 기발함을 지니고 있는 시구를 말하고, 완묘(宛妙)는 구체성과 추상성이 조화를 이룬 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1) 택당(澤堂)이 고문의 특성으로 시의성(時宜性)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이제(頤齋)와 비슷하다. 박영호, 「이식의 고문론」, 『한국의 한문학』 제2권, 민음사, 1991.

22) 기태완 외 역주, 『호응린의 역대한시 비평(譯註 詩藪)』,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13-22쪽.

23) 기태완, 앞의 책, 17쪽에서 재인용.

이 사랑할 만하고, 십대가(十大家)로는 양명신도(陽明新都)가 애완할 만한하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조선후기에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중에서 한유(韓愈)를 제일로 추종하는 것과는 달리 구양수를 문장의 모범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한유가 문장 짓는 데 골몰하느라 근본에 힘쓰지 않는다고 비판한 주자의 견해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제는 주자(朱子)에 경도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양명신도(陽明新都)’를 애완할 만하고 한 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양명신도(陽明新都)’를 ‘양명(陽明)’과 ‘신도(新都)’로 나누어서 왕수인(王守仁)과 신도(新都)를 애완했다고 보거나²⁴⁾, 왕수인(王守仁)의 글도 즐겨 읽었다고²⁵⁾ 보았다. 하지만 ‘신도(新都)’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왕수인의 문장을 이제가 애완할 만하다고 언급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왕수인은 양명학(陽明學)을 주창한 인물로 심성(心性)에 대해 주자(朱子)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자 성리학이 중심이 된 조선에서는 이단(異端)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이제의 경우에도 철저하게 주자(朱子)를 존송하여 이단의 학문을 배척하는 정도가 강하다. 그는 양명학의 지행합일설에 대해 논의가 나오자, 양명학의 지행합일이 육象山(陸象山)에 연원이 있다고 하면서 주자와 육구연(陸九淵)이 있는 것은 부처와 마귀가 있는 것과 같아서 한번 사라지고 한번 성장하여 서로 성쇠(盛衰)함이 있지만, 주자를 존송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집안이 편안하며 주자를 배척하면 국가가 어지럽고 집안이 위태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송원(宋元)과 명청(明清)의 흥망성쇠를 근거로 들어 강변하고 있다.²⁶⁾

그런데 왕수인에 대해 그의 학문과는 별도로 문장의 우수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은 「운양만록(雲陽漫錄)」에서 “운양명은, 학술은 비록 잘못되었지만 문장은 준수하고 상큼하며 지혜롭고 날카로우며, 여러 글들에서 떼어내고 베어내 모방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모두 자신의 흉중

24) 이상봉, 앞의 논문, 273쪽.

25) 이종묵, 앞의 논문, 102쪽.

26) 余曰(中略)大抵朱陸之說 未論他餘 有朱而有陸 如有佛而有魔 一消一長 相爲盛衰 而尊朱者 國治而家安 背朱則國亂而家危 如宋季以朱爲僞 而宋遂不振 元人雖外夷 而亦能知尊朱 以致九十年統一之盛 明二百年 薛敬軒以外 皆不出陸氏餘派 至於陽明以後 怪論妖說 不勝其衆 而天下遂復夷矣 明末 顧涇陽高梁溪師生 及呂晚村 重倡尊朱之說 而清人因之自入關 至今一百三十餘年 太平無事。(後略) 『이재난고』 제5책, 407쪽.

의 자득한 데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흉중 자득한 문장, 즉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은 개성적인 문장이라는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²⁷⁾ 택당(澤堂) 이식(李植)도 「작문모범(作文模範)」에서 “명대 문장은 두 부류로 구분된다. 방손지(方遜志)와 왕양명은 가장 중정(中正)하여 한유·구양수의 류(類)이다.”²⁸⁾라고 하여 당송고문(唐宋古文)을 모범으로 한 방손지와 왕양명의 문장을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또한 왕양명의 학문과는 별개로 그의 문장만을 모범으로 삼을 만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전겸익과 허균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명(明)의 신하였던 전겸익은 청(淸)에게 협조하였지만 결국에는 배척당하고 문집까지 훼손당한 불운한 인물이다. 이제는 가상의 문답형식을 통해 근본적으로 그가 절개를 지키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문집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²⁹⁾ 허균의 『국조시산』에 대한 견해에서도 비슷하다. 그가 거짓으로 끼워 넣은 이이(李爾)의 시 외에는 모두 선현 명류(先賢名流)의 작품들이므로 사람 때문에 그 글까지 폐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³⁰⁾

앞의 인용문에서의 십대가는 육홍조(陸弘祖)의 『황명십대가문선(皇明十大家文選)』에 수록된 작가인 이몽양(李夢陽)·왕유정(王維禎)·이반룡(李攀龍)·왕세정(王世貞)·왕도곤(王道崑)·당순지(唐順之)·모곤(茅坤)·왕신중(王慎中)·왕양명(王陽明)·동분(董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³¹⁾

27) 정순희, 『도곡 이의현의 고문론과 문학』, 한국문화사, 2004, 104쪽.

28) 김도련, 「고문의 원류와 성격」, 『한국의 한문학』 제2권, 민음사, 1991, 814쪽.

29) 余觀徐台命傳 今年自燕來啓別單記 淸主燒毀 錢謙益文集說話 其言歷舉謙益投順淸初 大節已虧 而乃以私傳文集 詆辱淸家 此出於矯誣百世之計耳 余聞世言謙益嘗失身 或言此不然 焉有其文如此 而其心獨異者乎 及觀本集 有所撰皇淸大都督碑銘 尤以爲疑 則或言此殆淸人所爲混入其中 將以病謙益耳 其言亦似有理 今淸主有言 又如此是 則出於憤怒詆辱 而然使謙益表表守節孤學 金餘之元好問 宋末之文天祥 則彼雖噉三尺 豈容侮斥 今有淫婦治容 人或挑而誘之 此特一時情慾使然 未有能愛之篤 而久之不忘者 蓋天理本自昭著 事過輒覺羞惡 人臣失節者 亦豈爲新朝英主 所深愛哉 百世之下 可以鑑矣. 『이재난고』 제3책, 152쪽.

30) <題國朝詩刪> 此編以其本出許筠 因載僞托栗谷詩 以誣栗谷者 故肅宗朝亟命毀板 而今世尙有未毀之本 一一流傳 則亦以一僞詩 以外皆係先賢名流所作 又其批評 雖出筠手 而律以小學所採劉安揚雄之說 則猶不可不以人並廢故耳 況筠嘗評宋龜峯翼弼詩集 尤庵固欲去之 而莫之去也 且如石洲於筠 豈非臭味之別 如風馬牛不相及 而筠旣慕其名 請選其許氏 一門詩以評 則石洲不能辭 蓋筠雖亂賊 而其慕流求爲此編之重者 亦非媚仗者所及 而石洲之許之也 其意又豈無以哉 抑崔錫鼎禮記類編 雖亦毀板 而金忠靖口禮記補註間多採而從之 不然 何以免於不廣 何以歸於不偏聞 此編者其監茲 甲辰閏三月 山雷散人黃永叟書. 『이재난고』 제7책, 177쪽.

31) 강명관, 『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007, 174쪽.

뒤에 오는 전겸익과 관련된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이재가 시대상으로 당송팔대가에서 구양수를 먼저 거론하고, 명나라의 십대가, 명말청초의 전겸익을 차례대로 언급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양명신도(陽明新都)에서 ‘양명(陽明)’은 왕양명을 말하고 ‘신도(新都)’는 왕양명의 문장 특성을 설명하거나 명 십대가에 속하는 인명이어야 한다. 아마도 초서체로 기록된 원본을 정서(正書)하는 과정에서 글자를 잘못 인식한 것 같다.³²⁾

마지막에 언급된 전겸익(錢謙益)은 비평가이자 작가로 명청(明清)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그는 모의(模擬)와 신기(新奇)에 지나치게 경도된 의고파와 경륜파에 반대하고 공안파 및 당송파의 성과를 집대성하여 법고이창신(法古而創新)이라는 문학론의 도출해 내었다. 또 두보(杜甫)의 시에 심취하여 시에 있어서 온유둔후(溫柔敦厚)를 강조하였다. 전겸익이 조선에 알려진 것은 17세기 말이었고 조선 후기 문학사에서 특히 18세기 문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³³⁾ 그런데 앞의 인용문에서 이재와 김정례는 전겸익(錢謙益)에 대해 달리 평가하고 있다. 이재가 전겸익의 글에 대해서 문장이 변화한 것이라고 하자 김정례는 다채롭지만 격이 낮다고 비판하면서 단지 변화에 능하고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재의 평가가 가치중립이나 호감에 가깝다면 김정례의 평가는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고 그 중요한 이유로 그의 글이 어렵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 난해함에 대해서도 김정례는 처음에 전범(典範)이 되는 육경(六經)이 본래 어려운 곳이 없음을 들어서 전겸익의 글을 평가절하(平價切下)했지만 이재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여기에서 더 발전하면 육경(六經)과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산만(散漫)하거나 격률(格律)에 맞지 않는 잘못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의현은 「운양만록(雲陽漫錄)」에서 전겸익의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32) ‘新都’에서 ‘都’를 ‘都’로 본다면 이재가 왕양명의 학술과는 별도로 그가 문장에서 이룩한 자득의 경지를 ‘새로움’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된다. 『이재난고』 정서본을 초서 원본과 대조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일이 절실하다.

33) 김윤조, 「조선 후기 한문학에 있어서의 錢謙益」, 『동양한문학』 제13집, 2000, 72-89쪽.

명말(明末)에 전목재(錢牧齋)의 문장은 넓고 자유로우며 글을 쓰는 것이 도도해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서야 그친다. 비록 글의 격조와 기세가 높지는 않으나 요컨대 왕세정(王世貞)이나 이반룡(李攀龍)의 여파(餘派)로서 그들의 경향을 좇은 류가 아니니 역시 얻기 쉬운 경지는 아니다.³⁴⁾

격조와 기세가 높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후칠자의 모의(模擬)와는 다른 경지에 도달했다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 문장의 특징이 자유분방하여 거침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의 이재와 김정례의 대화에서 전겸익의 문장을 ‘변화 [繁光] 하다’고 한 것 것과 통한다. 또 전겸익이 이반룡이나 왕세정과는 다른 경향의 독자적인 경지에 이르렀다는 점을 이재는 변화한 문장이라고 평하고 있는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의 문학론은 일면 평범하면서도 다른 면에서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박학(博學)의 학문 태도로 인해 동시대의 실학자와 비슷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자의 도덕주의적 문학관을 고수(固守)하는 면모도 있다. 그의 학문적 지향점은 박문약례(博文約禮)에 있었다. 그리고 도(道)와 문(文)의 관계에서는 도(道)를 본질적인 것으로 보고 문(文)은 이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인문오도(因文悟道)’의 중도적(重道的) 문학론을 볼 수 있었다. 또 온유돈후(溫柔敦厚)를 통하여 성정(性情)을 순화하고 풍교(風教)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온유돈후는 단순히 작품의 내용적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 작가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정의 순화를 전제하고 있고 직접적인 지시나 비판이 아닌 간접적인 매개물인 문학작품을 통해 ‘풍동(風動)’과 ‘교화(教化)’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고문론(古文論)과 관련하여서는 육경(六經)과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를 전범(典範)으로 삼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명(明) 의고파(擬古派)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고 왕양명(王陽明)과 전겸익(錢謙益)의 문장도 배우고자 하였다. 이재의 고문론은 ‘중정(中正)’과 ‘시의성(時義性)’을 추구

34) 정순희, 『도곡 이의현의 고문론과 문학』, 한국문화사, 2004, 104쪽.

하였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형식과 내용에서 성현의 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목적하였지만, 이것은 단순한 고수(固守)가 아니라 시대에 따른 변주(變奏)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으며 스스로 독자적인 경지에 오르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문학적인 면에서 이재(頤齋)는 전반적으로 성리학적 문학관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서 전후의 실학파나 북학파에 속하는 문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이재(頤齋)는 경화사족과는 정치, 경제, 지역 등의 측면에서 처한 입장이 달랐고 문장(文章)에 전념하지도 않았다. 그의 관심은 근본적으로 경학(經學)에 있었고, 주자(朱子)를 정통으로 삼고 시교(詩教)를 강조하는 등 정조(正祖)의 문예정책과 상당히 부합하는 점이 있다.³⁵⁾

본고에서는 서발(序跋)을 중심으로 이재(頤齋)의 문학론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의 문학론 전반을 포괄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쉽지만 이재(頤齋)의 문학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다른 학자들과의 비교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35) 강혜선, 『정조의 시문집 편찬』, 문헌과해석사, 2000, 15-34쪽.

〈참고문헌〉

1. 자료

『頤齋亂藁』1-9,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서본.

『頤齋先生文集』1-5, 경인문화사, 1999.

2. 논저

강명관, 『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007.

강혜선, 『정조의 시문집 편찬』, 문헌과해석사, 2000.

기태완 외 역주, 『호응린의 역대한시 비평(譯註 詩跋)』,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김승룡, 「頤齋 黃胤錫 연구의 추이와 과제 - ‘실학’에서 ‘일상’으로」, 『동양한문학연구』25, 2007.

김영주, 「서발문의 특징과 전개 양상」, 『한국한문학의 이론 산문』, 동방한문학회, 보고서, 2007.

김윤조, 「조선 후기 한문학에 있어서의 錢謙益」, 『동양한문학』제13집, 2000.

민경삼, 「이식 《杜詩批解》의 득과 失」, 『중국학논총』제10집, 1999.

백원철, 「頤齋 黃胤錫 漢詩의 實學文學的 照明」, 『이재 황윤석의 학문과 사상』, 이재연구소, 경인문화사, 2009.

이병주 엮음, 『한국의 한문학』제2권, 민음사, 1991.

이병한 편저,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3.

이종묵, 「황윤석의 문학과 『이재난고』의 문학적 가치」,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정순희, 『도곡 이의현의 고문론과 문학』, 한국문화사, 2004.

정요일, 「고전비평 용어의 개념 규정」, 『고전비평 용어 연구』, 태학사, 1998.

조남권, 『한국고전비평론』권2, 민속원, 2006.

최삼룡, 「이재 황윤석의 문학연구」, 『頤齋 黃胤錫 - 영·정 시대의 호남실학』, 민음사, 1994.

〈Abstracts〉

The Literary Theory of Lee Jae Hwang Yoon Seok

— With a focus on prefaces(序跋) —

Kim, Do Hyeong

This study approached Lee Jae Hwang Yoon Seok's literary theory with a focus on prefaces. He emphasized Confucian classics more than a literature(文章) and his literary theory generally followed Confucian literary viewpoint. His academic aim is Barkmunyakrye(博文約禮), and while he pursued it he always tried not to indulge in trivial or shabby thing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o(道) and a literature(文), he considered Tao(道) as an essential thing and a literature(文) as a process to reach Tao, and he shows a moral literary theory of Inmunohdo(因文悟道). In addition, he tried to purify nature(性情) and realize education of public morals(風教) through Onyudonhu(溫柔敦厚). In terms of Gomunron(古文論), he regarded Yukgyeong(six scriptures 六經) and eight great masters of Tang and Song Dynasties(唐宋八大家) as the model while he was greatly affected by Wuigopa(擬古派) of Ming Dynasty and tried to learn Jeon Gyeom Ik's sentences. In short, he pursued 'impartiality(中正)' and 'timeliness(時義性)' and he aimed to basically follow saints' right instructions in forms and contents, but he not only adhered to it but also accepted variations according to time and developed his own stage positively as well.

Keywords : Lee Jae(頤齋), Hwang Yoon Seok(黃胤錫), literary theory(文學論), prefaces(序跋), Barkmunyakrye(博文約禮), Inmunohdo(因文悟道), Jungdo(morality(重道)), Onyudonhu(溫柔敦厚), education of public morals(風教), Gomunron(古文論), impartiality(中正), timeliness(時義性)

이 논문은 2010년 7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8월 12일에 심사완료되어 2010년 8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